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2021-2023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참여·사명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3년 간 경청, 식별, 협의라는 세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평신도, 사제, 선교사, 축성 생활자, 주교, 추기경들은 2023년 10월 바티칸에서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세 단계를 먼저 경험할 것이다. 이는 각자가 관할 교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요청에 따라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다.

- 바티칸 뉴스 한국어판, “지역 교회,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새로운 출발점”, 2021.5.20

보편 지향 기도

1.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고 인류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2.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요셉과 비오와 부산교구에 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노드를 거행하는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고 담대히 실천해 나가게 하소서.

3.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언제나 공동선을 추구하고, 청렴한 삶으로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4. 병자들과 외로운 이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이가 결코 버림받지 않고 언제나 소중한 보살핌을 받게 하소서.

5. 여기에 모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노드의 공동합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은 친교를 이루고 이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며 세상에 나가 사명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입 당 송 시편 17(16), 6.8 참조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제1독서 이사야서 53, 10-11

화 답 송 시편 33(32), 4-5, 18-19, 20과 22 (©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후렴)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1.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2.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3.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 4, 14-16

복음 환호송 마르 10, 45 참조

◎ 알렐루야.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복 음 마르코 10, 35-45

영성체 송 시편 33(32), 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욕망과 자유

마르코복음 9~10장은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일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장악하던 곳이기도 하여, 벌써 세 차례나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마르 10.33-34 참조)이라는 치명(治命)을 스스로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자리다툼으로 스승의 행보를 어지럽힙니다. 죽으러 가는 스승 뒤에서 자기는 이기고 세우고 움켜쥐느라 질척대는 발걸음을 스승께서는 멈추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십니다."(마르 10.42)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4)

욕구가 욕신에 담긴 본능이라면 욕망은 마음에 박힌 뇌관입니다. 욕구는 절대적이지만 욕망은 상대적

입니다. 그러기에 욕망의 대부분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입하고 조작하여 나아가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왜곡하지만, 욕망을 완전한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누군가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단정 짓기에 이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상위계층의 욕망을 흉내 내며 동류의식을 느끼기 위해 욕망을 욕망하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욕망을 '소비'하느라 생명은 지속적으로 종속당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이 세상은 갈수록 영리하게 타인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도록 부추깁니다. '참으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참으로 청해야 할 것은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스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 이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움을 통

하여, 높음의 성취가 아니라 낮음의 선선함을 통하여, 차라리 내가 부수어지고 말겠다는 결연함의 밀도가 '모든 이의 종'이라는 선포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희생과 섬김을 내 인생에 담아야 합니다. 비록 한평생 욕망의 바다에서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한 척의 배를 띄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민으로 가까이 불러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마르 10.43) 다시금 바로 잡아주시던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 구원역사를 이어가실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영만

세례자요한 신부
부산가톨릭의료원 기획실장



10월 묵주 기도 성월을 맞아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성모님의 삶이 늘 기쁨에 가득 찼듯이
우리 삶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 (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10.18(월)~19(화)
조영만 신부(부산가톨릭의료원 기획실장)
10.20(수)~23(토)
한상엽 신부(이기대성당 부주임)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0.17(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막방 특집!
출연 : 김창석 신부, 이원용 신부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윤진 비비안나
10.20(수) <하늘타리>
부산교구 보좌 주교님과 함께
출연 : 신호철 비오 주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부터 11년 전 어느 날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첫마디가 “당첨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밀양 지동에 들어선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톨릭 업무를 담당할 교정사목 회장직에 제가 신부님의 특별 지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지만, 결국 그 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그 이전까진 매주 금요일이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여 교정사목 회원들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 방문할 땐 세례를 받은 몇 명의 수용자들과 같이 복음 나누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며 서로 훈훈한 정을 나눌 수가 있었으며, 수용자들을 만날 때 마다 눈

물이 나와서 힘들어 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구치소가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고부터는, 교정사목에서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오셔서 1·3주는 미사를 봉헌하고 2·4주는 교리 공부를 하는데, 참석한 수용자가 모두 신자는 아니지만 하느님을 알고 싶어 자발적으로 온 만큼 잠깐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수용자가 상담 신청을 해 왔는데 교도관과 함께 하는 방에서 그분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들어 드릴 테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10여 분간을 우시고 나서는 “잘 못했다.”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면에 은총을 퍼부어야만 회개하게 된다는데, 그분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자비의 힘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

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난 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으니 늘 함께 계실 겁니다.”라고 격려를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여 기쁘게 세례를 받았으며, 잘 적응하여 모범수로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교정사목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힘껏 지원해 주시는 본당 신부님과 교우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영 해 아가다
밀양성당 · 교정사목 봉사자



40. 성체 조배

‘성체 조배’ 영상 바로보기

성체 조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레지오 마리아 등 신심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롯이 ‘일대일’로 만나는 ‘성체 조배’를 낫설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참고 민스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

실까 걱정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성체 조배가 낯선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권하는 방법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과 일대일 만남이 자연스러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루카 10,2)

3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나는 인생 2막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유년 시절 보냈던 시골에 대한 정서가 있어 귀농에 대한 생각, 손이 필요하지만 봉사자가 없어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교구 내 공소 봉사자, 긴 시간 동안 희생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지를 해준 아내와 함께하는 1년 정도의 제주살이 등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늦은 가을, 부산교구 후보에 실린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이라는 글귀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신학대학원은 사제양성 과정을 위한 신학대학 대학원 과정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변경되어 부산교구에 평신도도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삶이 함께하지 않고 입에만 있는 기도와 신앙적 지식은 오히려 이웃에게 하느님을 더 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진들은 전국 어느 신학대학 교수진보다 젊고, 패기가 넘치며 학문적인 바탕은 물론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신학대학원 입학은 첫해이기에 상대적으로 희망자는 많았으나 대학원 입학 정원에 묶여 경쟁률이 높아 합격률이 낮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공부하고 싶은 뜻을 가진 보다 많은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

교직에 있을 때 고해성사 때마다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저는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지금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향후 이런 고백은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출발점을 신학대학원 입학으로 삼고 싶다.

평생 공학을 공부하고 후학을 길러내는 일을 했기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고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교수 신부님이 첫 시간에 들려주신 **“신학이라는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에 힘을 얻어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서서히 성장하여 훗날 주님 포도밭에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 가리라는 기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가려 한다.

■ **최재석** 사도요한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평신도·수도자를 위한
신학 석사과정] 개설

- 원서접수 : 2021.11.3(수) ~ 11.16(화)
- 서류제출 : 2021.11.3(수) ~ 11.17(수)
- 면 접 : 2021.11.25(목)
- 모집요강 :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cup.ac.kr>) 참고
- 전화문의 : 신학대학 행정실 051)519-0442



레지오마리에 창설 100주년 기념미사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강론 중에 “우리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대로서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교회와 레지오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나날이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지도 : 이장환 신부, 단장 : 박용혁 가롤로)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토)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특별히 미사 중에 레지오 전 단원이 100일 동안 바친 묵주 기도 11,461,500단을 봉헌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60년 개근 단원인 송도성당의 별 Pr. 김해걸 예로니모 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50년 근속 단원, 50년 이상 활동 단원, 모범 브레시디움 등 레지오 마리아 발전을 위해 힘쓴 단원들의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파티마 성모 발현 104주년 기념미사



지난 10월 7일(목)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성당에서 ‘파티마 성모 발현 104주년 기념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또한 전야 기도회, 9일 기도, 파티마 성모상 가마행렬 등 파티마 성모 발현의 의미와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0월 3일(일)
주임 : 김두윤 신부, 회장 : 손완호 미카엘



화봉

10월 3일(일)
주임 : 오창근 신부, 회장 : 신동해 마르코



할천

10월 3일(일)
주임 : 고원일 신부, 회장 : 강규순 요아킴



남산

10월 9일(토)~10일(일)
주임 : 김준한 신부, 회장 : 황순호 라우렌시오



율하

10월 9일(토)~10일(일)
주임 : 최요섭 신부, 회장 : 조인섭 베네딕도



달맞이

10월 10일(일)
주임 : 전재완 신부, 회장 : 흥원표 안드레아



모라성요한

10월 10일(일)
주임 : 변성수 신부, 회장 : 강귀덕 크리스티나



(마르코 10,4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첫 번째 실천사항인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의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위한 성구가 매주 게재됩니다.
1년간 상단의 성구 위에 따라 쓴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p>■ 모집부문 및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p> <p>시, 시조, 동시(5편) 소설(70매 내외 1편)</p> <p>수필(15매 내외 2편) 동화(30매 내외 2편)</p> <p>희곡 (80매 내외 1편) 평론(80매 내외 1편)</p>	<p>■ 접 수 10월 31일까지, 매일 접수</p> <p>■ 보낼 곳 sotoajimae@daum.net</p> <p>■ 참고사항</p> <p>-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이름(반드시 실명), 한글 표일에 작품 및 간단한 약력, 주소, 전화번호 기입할 것.</p> <p>- 응모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음.</p> <p>-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기회와 본회 회원자격 부여.</p>
<p>■ 심사방법</p> <p>- 심사위원은 문단의 권위 있는 작가로 함</p> <p>-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 수여</p>	

문의 : 010-6627-1070(윤미순 주간), 010-2582-2969(정명지 편집장)

<p>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p>	 <p>2017.10.17.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p>	 <p>1978.10.19. 김경우 (알렉시오) 신부님</p>
------------------------	---	---

위령의 날 미사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의 날’ 야외 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2. **미사 생중계(유튜브)**
11월 2일(화) 10:30
- 교구장 주교님, 교구청, 대리구청 사제단 공동집전
- **교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가톨릭라이프부산’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 (현장 참석 불가)**
3. 미사지향 및 예물 접수
- 기 간: **11월 1일(월)까지**
- 접수처: **하늘공원 사무실 (전화접수 055-374-8733)**
*** 미사에물은 반드시 전화 후 입금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4일~10월 10일]

소계 : 1,244,000원

반여성당 444,000 순교자들의모후 100,000 정명자 50,000 이만배 50,000
정중혁 200,000 박금옥 100,000 김복동 300,000

누계 : 911,914,94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p>오두종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대학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앞</p>	<p>해월씨에스의원 암요양 고주파치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원장. 한 창 순(마리아) 710-7090 해운대구 달맞이길 227</p>	<p>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 분야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513-3493, 010-9594-2360 부산지방법원(거제동) 맞은편 서정빌딩 7층</p>	<p>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력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p>안락성모안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쌍반변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 현 덕 (바오로) 상담문의 525-5656 안락로타리 부산은행 4층 (충렬사역 2번출구)</p>	<p>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버게트 건물 6층</p>	<p>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 의 이 상 열(베드로) 516-0888</p>

부산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내용 : 스튜디오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 ① 커플 당 286만원 할인
 ② One Stop 결혼 및 혼인미사 준비
 문의 : 441-3500, catholicwedding.kr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체나클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0.19(화) 14:00 · 가야성당
 14:00 기도(합송하지 않고 개별), 15:00 미사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0.21(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
 주제 : 근현대 성인들(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문의 : 515-0030

연중 제29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Ecce Ego, Mitte Me?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이사 6,8)

일시 / 11.6(토) 13:30~16:30

장소 / 남천성당 대성전

- 주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 강사 : 전수홍 신부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10.18(월) 11: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 (시각선교회)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회 미사

· 10.19(화) 14:00 · 가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
 주례 : 김현 신부 / 문의 : 464-2707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10.21(목) 10:30 금정성당
 주례 : 윤성완 신부(1군단사령부 성요셉성당)
 울산 : 11.5(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강인구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0.20(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0.22(금) 21:00~23:00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우리농 물류팀 구함

자격 : PC가능(한글), 1종보통면허증소지
 서류 : 본당신부님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464-8495~6, E-mail, woori-pusan@hanmail.net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경비실 직원 구함

대상 : 경비, 청소업무, 60세 미만 남자 1명
 문의 : 519-0437, 010-3877-3588

교육·모집·기타

나의 후보성인 만들기(목각)

· 10.29(금), 10.30(토) 13:00~16:00
 (양일 중 선착순 마감)
 문의 : 465-2173(바오로딸), 010-2707-1610

신·구약 성경 완독과정

· 11.5(금)~13(토) ·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문의 : 010-3340-0201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울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피정 : 11.20~22, 11.26~28, 12.3~5
 성지순례피정 : 11.6~9, 11.14~17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 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 12.6(월) 14:00
 원서접수 : 11.1(월)~12(금) 17:00 / 문의 : (02)2258-7076(대학원교학팀), (02)2258-7107(조교)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지원

[부 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 10.14(목)~12.14(화) / 접수 :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전형 :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접수기간 : 11.3(수)~11.16(화)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문의 : 일반전형 510-0742 / graduate.cup.ac.kr
 외국인전형 510-0862~4 / kwak@cup.ac.kr

'1형 당뇨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정
 집에서 전화로 진료 받으세요
메리놀병원TV 정형외과 조세현 병원장
 “관절염 예방,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465-8801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배움터 대실
 ▶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
 ▶ 교육·세미나·워크샵 가능 / 음향·영상시설 구비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 8층 21평, 6층 21평, 14평 ▶ 가톨릭 신자 및 단체 환영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주름개선</p>	<p>수맥연구소 제153차 5주교육과정 무료진행 “수맥파, 아는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31년 경력, KBS아침마당 출연 문의 517-3233 서순복(말바나) 010-3862-6834</p>	<p>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 무 호 (토마스) 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점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메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p>	<p>밝은수안과 노인/백내장 수술전문, 안구건조증, 녹내장, 안종합검진 대표원장. 박 찬 수(스테파노) 808-1010 서면롯데백화점 정문 맞은편 SS메디칼빌딩 8,9층</p>
<p>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 김 필 분(모니카), 황 지 은(마리아)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분 중간)</p>	<p>도로연수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종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클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지하철역 4, 6번 출구(0층, 빨간색 간판)</p>